

사회

# 인화원 교사가 원생 폭행·안마 강요

## 인권위 조사 결과, 생활교사 7명 경찰 수사 의뢰

### 피해자 10~20명... 시효 유효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우석'법인 소속으로 장애인들이 생활했던 인화원에서도 최근까지 폭행과 안마 강요 등 인권침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주 인화원에서 교사들이 시설 장애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폭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태가 재조명되자 지난 10월29~31일 사흘간 우석법인과 이 재단 소

속 시설들을 대상으로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화원 원생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조사에는 인권위 조사관과 심리치료팀, 의료진 등 8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한 여성 생활인은 야간에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마를 해왔던 정황이 드러났고, 다수의 생활교사들도 안마 강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수의 피해 생활인들이 특정 생활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인화원 내부에서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 확보하면 생활교사 6명이 생활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둘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교사들은 인화원이 폐쇄됨에 따라 최근까지 같은 재단 소속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10~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요죄와 폭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유효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안마강요와 폭행은 장애 차별금지법 위반이며, 각각 강요죄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화원에서는 외출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화원이 지난 31일 폐쇄돼 시설장의 책임 등은 별도로 묻지 않았다.

또, 광주근로시설과 광주인화원보조작업장의 통장 잔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 임금에 적

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광주인화원보조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월급을 3만원만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권고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광주 관공구청 등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과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인화학교 성폭력 특별수사팀은 29일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2가지 사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 과로사 산재 인정"

### 광주지법

워크아웃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서 쓰러져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금호타이어 전 개발팀장 박모(사망 당시 48)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전부터 개발팀장으로 근무했지만,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는 등 근무상황이 달라졌다"며 "박씨

는 중추적인 부서에서 일하면서 업무량과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지난해 2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고 발생일 전 보름간 휴일에도 쉬지 않으면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업무도 맡았다"며 "업무상 과로와 심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정오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구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470) 김장두



## 경로당서 판돈 3만원 '삼봉' 노인 10명 무더기 입건 논란

경찰이 경로당에서 판돈 3만여원을 걸고 화투를 친 노인 등 모두 10명에게 도박과 도박장조 혐의를 적용, 무더기 형사입건해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60, 70대 남녀 노인 7명과 50대 남성 2명 등 모두 9명이 광주시 동구의 한 경로당에서 돈 내기 화투를 친 것은 지난 27일 오후 2시20분께, 평소 같은 경로당을 다니며 친분이 있던 김모(68) 할머니 등 노인들은 모두 합쳐 3만2400원을 놓고 한 게임에 100점에 200원씩 받는 일명 '삼봉'을 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박이라고 보기엔 극히 적은 액수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노인들을 전원 도박 혐의로 입건하면서 문제가 됐다. 경찰은 현장을 단속하면서 당시 판돈 700원 등 1000원 이하의 돈을 소지하고 있던 노인 3명까지 모두 도박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또 경찰은 경로당을 관리하는 80대 할머니까지 '도박장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나 심심풀이 화투를 친 노인들을 상대로 지나친 단속을 벌인 것이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미 도박 전과가 있는데다가 평소에도 자주 신고가 들어와 단속했다"며 "여러 차례 훈방 조치했으나 범주지 않아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박중독 관련 뉴스를 취재하던 광주 모방송사 기자가 취재후 신고를 해와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단순 오락과 도박의 판단기준은 참가자의 재산정도 판돈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대법원은 판돈 2만 2900원을 걸고 점당 100원 내기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판돈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지난 2009년 무죄 판결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벤츠 여객사' 사건 관련 현직 부장판사 금품수수 특임검사, 수사 발표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객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와인 7병(110만원 상당)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A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거나 법인카드를 내 식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A 부장판사가 현금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종교계,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28일 광주시 동구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학생 20% 자살 생각"

### 질병관리본부 조사 ... 전국서 가장 높아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살을 고려하는 광주·전남 중·고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통합당)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중·고교생 5명 중 1명이 자살을 고려했고, 20명 중 1명은 실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9월 전국 800개 중·고교 학생 7만4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7만3238명)의 19.3%는 최근 1년 사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서울이 2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충북(20.4%), 경기(19.6%)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17.5%), 경북(17.4%) 등이었다.

또 응답자의 5.0%(3616명)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고, 이중 13.

0%는 자살 시도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율은 중학교 1학년이 6.0%로 가장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 3학년의 자살 시도율은 4.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학교폭력 신고 경찰, 비밀보장

경찰이 학교 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내용에 대해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사건 수사를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접수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합지원 사이트인 인터넷 포털 '안전Dream(www.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가해학생·부모·학교 모두 책임"

### 대법, 집단괴롭힘 피해가족에 5700만원 배상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 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치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급우들은 김씨를 바보라고 놀리며 교실에서 뺨을 때리곤 했다. 가을소

풍 때는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김씨를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겨울철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물을 쫓겨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이 가해 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가족은 급우들의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 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을 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부인, 최경주복지회 직원 고소

○서울중앙지법 검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프로골퍼 최경주(41)씨의 부인 김모씨(사)·최경주복지회와 최경주재단 직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최근 고소해 수사를 중.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리 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가 서로 짜고 김씨의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등 22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자금 횡령을 위해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문서도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최경주복지회는 골퍼 주니어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

/연합뉴스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월 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컴]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 장학금**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